

## 성 고정관념: 왜 끈질긴가?

조혜자

이화여대 심리학과

본 논문은 성 고정관념은 다른 고정관념들에 비해 왜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며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지를 성 고정관념의 내용적 측면과 사회적 현상, 지각자의 입장, 대상의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성 고정관념은 능력과 호감차원으로 구성되어있어 여성에게는 호감차원에서 처방적일 뿐 아니라, 사회가 남녀에게 비대칭적으로 제공하는 역할과 지위, 파워가 남녀의 반응을 변화시키고 순환적으로 고정관념을 유지시키는 기제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성 고정관념은 전의식 수준부터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며, 암묵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동시에, 대상들 스스로 자기인식과 행동을 고정관념에 맞추으로써 순환성을 가지고 유지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개인수준의 수정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21세기는 잘못된 신념들은 수정되며, 근력은 중요하지 않고 힘의 논리보다는 여성적 가치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직장에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 하는 사람은 여사원이라고 자연스럽게 믿고, 취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여성적 가치보다는 힘의 논리가 가치 있고, 근력과 권력이 우선되며, 세계는 돌봄이나 이웃개념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평정을 이루려 하고, 폭력적인 영화들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Glick과 Fiske(1999)에 따르면, 여러 가지 고

정관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고정관념은 성 고정관념이다. 1950년대에는 흑인과 여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고정관념은 아주 유사했으나, 이후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상당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최근의 실험들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능력을 사장시켰던 과거와는 달리, 교육받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성 고정관념을 끈질기게 유지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 의

고정관념이란 말은 Walter Lipmann(1922)의 “대중의 의견”이란 책에서 처음 나온 단어로, “이 세상을 실제보다 더 이해가능하고 통제가능한 것처럼 단순하게 보는 그림”이라고 정의되었다. 브리태니카에서는 고정관념은 어떤 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갖는 표준화된 정신 표상으로서, 과도하게 단순화된 견해, 편견적 태도, 또는 무비판적인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들의 자질이나 특성들에 대한 인지적 일반화라고 본다.

성 고정관념은 남녀가 소지한 것처럼 보이는 특성들에 대한 믿음의 집합이다(Deaux & LaFrance, 1998).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성 고정관념은 남녀라는 사회적 범주에 개인적 속성을 연결시키는 추론관계의 구조적인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Ashmore, DelBoca, & Wohlers, 1987). 성 고정관념은 젠더에 대한 신념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이며, 다른 신념체계(성 정체성,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 2. 성 고정관념의 실용성

Lippman(1922)은 현실이란 너무 복잡하여 누구라도 정확히 표상할 수 없으며, 고정관념은

지각, 판단, 행동을 단순화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은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수용되어져 고정관념은 에너지 절약장치로서 복잡한 사회에 반응해야 하는 노력을 감소해 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Fiske(1998)는 인지적 경제성 때문에 사람들은 타인을 특정 집단, 즉 일반화된 고정관념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범주화한다고 본다.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처리는 시간 소모적이고 노력이 드는 반면에, 집단범주화는 사람들을 특정 범주에 배정하면 되는 보다 초보적인 기술에 의존하며, 범주화가 이루어지면 고정관념 정보를 적용하여 정보처리를 단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성별은 아주 어려서부터 습득하고 사용해 왔으며, 사회적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접해 왔기 때문에, 정보처리과정에서 성별 범주화는 의식수준 이전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자동적 처리는 자극의 의미가 처리되기도 전부터 일어나며, 우리의 의지나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화는 거의 자동적이고 암묵적으로 성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킨다.

인물은 인종이나 연령, 직업, 신체적 특성 등의 다양한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런 범주들 중 사람들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끄는 범주는 성별 범주이다. 성별은 여러 맥락에서 인종이나 연령, 직업보다 우세하게 사용되며, 아동들이 가장 일찍부터 사용하는 범주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억오류에서 반영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해내야 할 때, 기억오류가 성별범주 내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여자들 중에 자신이 만났던 사람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오류를 범했으나, 인종이나 키, 직업 등 다른 범주와 관련한 오류는 상대적

으로 적었다. 이는 성별범주가 시각적인 범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에 문화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범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Fiske, 1998). 문화적 맥락은 다양한 범주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명화되어가면서 문화적 범주를 배우고 습득하며 동조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와 문화는 남성과 여성에게 역할과 지위, 파워를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 범주는 더 중요하게 읽혀지고 일찍부터 발달하게 된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문화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바를 정확하게 읽고 그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 고정관념은 다른 고정관념들과는 달리 기술적인 메시지 뿐 아니라 처방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 고정관념은 남자에게는 과제역할을, 여자에게는 사회적 역할 또는 정서적 역할을 처방하고 있다. 즉 남자는 유능해야 하고, 여자는 착해야 한다. 이러한 처방적 메시지는 전통적인 사회적 배열을 현재의 가부장적 상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사회적 통제의 한 형태라고 지적된다(Fiske, 1998). 즉 젠더는 사회적 통제와 사회적 유용성을 위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사용되는 것이다.

### 3. 고정관념의 내용적 특성

#### 1) 성 고정관념의 범위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은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사람들을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에 근거해 이야기하게 된다. 그 범위는 신체특성과 성격특성, 역할, 직업적 선호도, 특수한 능력들, 그리고 정서적인 성향 등이다(Deaux

& LaFrance, 1998). 문화적으로 공유된 가정은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 독립적이고 주장적이며, 여성들은 감정적이며 남을 보살피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정서와 관련해서, 여성들은 더 많이 울지만 분노는 덜 표현한다고 생각된다. 직업적으로는 목수 일이나 비행기 조종사는 남자의 일이며, 유치원 선생이나 간호사는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신체적 특성에 대한 기대는 남성은 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고, 넓은 어깨와 짧은 머리카락을 가지는 것으로 기대된다(Deaux & Lewis, 1984). 이런 고정관념의 내용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성에 대한 명칭과 역할행동에 대한 정보를 주었을 때, 사람들은 성격특성, 직업, 성적 취향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중 신체특징이 다른 고정관념의 요소추론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

#### 2) 성 고정관념의 두 차원

성 고정관념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는 하지만 남녀의 대표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도구적인 특징과 여성의 표현성으로 요약되어 왔고, 이러한 내용은 과거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수용되어 왔다(Spence & Buckner, 1998). 그러나 다차원 분석에서는 더 포괄적인 차원을 제안한다. Ashmore와 동료들(1987)은 다차원 분석결과 성 고정관념은 평가와 능력의 두 직교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능력차원에는 지배-복종, 통제-피지배가 포함되고 남성은 지배와 통제, 여성은 복종과 피지배와 연결되며, 평가차원인 좋다(good)-나쁘다(bad)에서는 남녀차이가 지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Glick과 Fiske(1999)는 평가차원 대신에 호감차원을 제안한다. 고정관념

은 전형적으로 두 차원을 따라 집단들을 범주화 하는데, 능력차원과 호감(likability)차원이라는 것이다. 이때 유능성의 지각은 그 집단의 지위에 의해 결정이 되는 반면, 호감은 집단간 경쟁이나 협동이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한 집단은 좋아하지만 능력 없는 집단(예: 여성, 흑인, 노인, 맹인, 가난한 사람)이고, 다른 집단은 좋아하지 않지만 능력있는 집단(예: 아시아인, 유대인, 독일인, 부자, 백인)이다. 첫째 집단은 무능력함으로 규정되나, 덜 가치있는 차원인 대인관계 기술이나 영성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집단으로, 이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 덜 위협적이므로 좋아할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능력이나 재능, 노력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에게 경쟁적이고 위협적이므로, 인간적이지 못하고 엄격하고 재미없고 잔인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좋아하지 않는다(Fiske, 1998).

성 고정관념은 전형적인 여성은 착하지만 무능한 집단으로, 남성은 유능하지만, 여성보다 착하지 않은 집단으로 규정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더 좋아한다. Eagly와 Madinic(1993)은 의미 차이척도와 성고정관념의 자유반응 측정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좋아하는 집단으로 평가됨을 발견하고, 이를 "women are wonderful effect"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처럼 지배집단과 종속집단이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일 때, 지배집단은 자신들의 능력차원에서의 우위성과 자신들이 져야하는 부담을 강조하면서, 종속집단에 대해 호감차원에서 처방적이고 가부장적인 고정관념을 적용하게 된다. 즉 남성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위한 희생

과 경제적인 부담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이 가사와 양육을 책임질 것을 강조한다. Fiske와 Stevens(1993)는 성 고정관념은 기술적일 뿐 아니라 처방적인 성질도 가지면서 남성이나 여성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반영하는 믿음도 포함 된다고 보는데, 바로 상호의존관계가 착취적일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Glick & Fiske, 1999).

그렇다면 성 고정관념 내용을 이루는 전형적인 여성이나 남성이란 누구를 의미하는가? 연구들은 여성과 남성의 하위유형들을 밝혀왔다. 여성의 하위유형은 가정주부, 멋진(sexy) 여성, 직장여성, 여권주의자 등으로 분류되는데, 전형적인 여성은 가정주부나 멋진 여성의 유형에 가까우며(Fiske, 1998), 가정주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여권주의자는 남성들에게서는 그 반대로 평가된다(Deaux & LaFrance, 1998). 여성의 하위유형들은 매력과 독립성, 전통성 여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인간관계나 젠더와 연결된 개념들이다. 반면 남성의 하위유형은 사업가, 마초, 운동선수, 노동자, 지식인 등으로, 이 분류는 일관성이 덜하고, 젠더와는 덜 관련되어 있다. 즉 하위유형의 분류기준이 시사하는 바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더 젠더가 강조되는 집단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처방받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 3) 고정관념의 정확성

고정관념이 유지되는 이유중 하나는 그 내용이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의 핵에 관한 논의는 고정관념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주장되어 왔다. 고정관념이 많은 경우에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은

세상이해에 합리적인 범주이며, 외부세계에 대한 적응기제로 진화된 것일 뿐 아니라(Baron, 1995), 현실을 반영한다고(Jussim, 1991) 정당화되었다. 남성의 능력과 지적 우수성, 그리고 남녀의 역할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뇌 연구를 하고, 능력에서의 성차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뇌이론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남성과 여성은 뇌의 구조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wim(1994)은 성 고정관념의 정확성을 알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성차이를 추론케 하고 이를 경험적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성차의 상대적인 효과크기를 정확하게 추정하였다. 또한 Eagly(1995) 역시 메타분석을 통해 나타난 성차는 성 고정관념과 맞다고 논의한다. 그러나 문제는 집단간 평균치의 차이가 특정 개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Biemet(1999) 등의 기준이동 현상은 고정관념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남녀가 담당하는 역할과 지위, 파워에서의 차이는 고정관념의 내용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고정관념의 내용은 어느정도 진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위에 따르는 기대와 고정관념은 실제로 여성들로 하여금 그에 맞는 성격특성들을 기르고 행동을 하도록 하며, 생리적인 차이도 야기시킬 수 있다. Twenge(2001)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미국 여학생들의 경우, 1931-1945년 동안에는 여학생들의 주장성이 증가했지만, 1946-1967년 사이에는 주장성이 감소했고, 다시 1968-1993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가 여성들에게 어떤 역할과 지위를 제공했느냐에 따

라 여성들의 주장성이 달라지고, 사회변화가 성격특성의 형태로 내면화되어 나타남을 시사한다.

#### 4. 사회적 현상

##### 1) 역할

역할이란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이 각기 취해야 하는 특성화된 행동들의 집합이다. 역할은 개인들이 소속된 조직구조 속에서 담당해야 하는 영역을 지적해 줌으로써, 행동을 구성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조직구조에서는 집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개인에게 적합한 역할을 맡기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할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역할은 크게 과제역할과 정서적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집단이 생존하려면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는 동시에, 구성원간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두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두 욕구는 과제역할과 사회 정서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 즉 과제역할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집단의 목표설정, 과제수행, 일의 할당 등을 담당하는 역할들이며, 사회 정서적 역할은 집단 구성원들의 대인적 욕구와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조정자와 활력자, 위로자의 역할이다. Parsons에 의하면, 이러한 두가지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역할 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본다.

남녀의 역할분화는 인간 생식과 관련하여 나타나게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믿어진다. 모든 문화권에서 여성은 아기를 생산하고 기르는 책임이 있으므로, 여성들은 아동에 대한 생식 투자를 하면서 정서적 역할을 맡게 되었고, 생식 투자에서 자유로운 남성들은 과제역할을 담당하

게 되었다는 것이다(Glick & Fiske, 1999). Parsons는 남성들은 주로 과제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도구적 행동을 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사회정서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표현적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보며, Spence 와 동료들(1978)은 성 고정관념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여성의 표현성, 남성의 도구성이라고 보았다.

Eagly(1987)도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가 전형적으로 남녀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면서, 여성들은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공동체성(communion)을 소유하게 되고, 반면 남자들은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주도성(agency)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고정관념의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Hoffman과 Hurst는 이를 역으로 설명한다. 즉 성 고정관념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동의 성적 분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본다. 역할분할이 우연히 일어나도 일단 존재하면 합리화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벨리언, 2001). 즉 역할이 실제의 성차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분업이나 역할 자체가 성 고정관념을 양산함을 지적한다. 사실상 성 고정관념의 내용이 처방적이라는 점을 수용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역할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Kimmel(2001)은 역할이란 선생이나, 친구, 어머니와 같은 것이지, 성이나 종족, 연령은 개인의 역할을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회는 성에 역할을 할당함으로써, 남녀관계를 힘의 관계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역할에 기반을 둔 성 고정관념은 능력보다

는 성을 근거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맡기므로, 개인의 활동영역을 한정시키며, 그럼으로써 고정관념은 확인되고, 반복되며,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아기를 돌보는데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능숙하고 유능하다고 믿으므로, 여성에게 그러한 일을 기대하고 부탁을 하며, 그런 역할을 맡은 여성은 아기를 달래고 돌보면서 함께 있어 주게 된다. 사람들은 타인을 지각할 때 그가 맡고 있는 역할행동을 그 사람의 개인성향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달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은 성 고정관념을 확인시켜 주는 효과를 낳게 되고, 고정관념은 계속된다.

## 2) 지 위

사람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부터 상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설정하려고 한다. 상대적인 지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형태로 사귄지, 친밀감은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지,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할지를 결정해 준다. 또한 집단수준에서는 구성원들은 서로의 지위특성에 주목하게 되고, 지위특성을 많이 소지한 사람에게는 여러 집단활동을 허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지위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정도에 의해 획득되기도 하지만, 개인이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부여받는 지위(given status)도 있다(Fiske, 1998). 문화적인 맥락은 사람들을 성별이나 연령, 인종 등 범주로 나누고 그에 따라 각기 다른 지위를 부여해 왔기 때문이다. 기대-상태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의 지위를 결정할 때 개인의 능력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특수지위특성과 그가 어떤 범주에 속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

는 보편지위특성을 고려한다(Forsyth, 2001). 특수지위특성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으로서, 농구팀에서의 큰 키, 슛의 정확도 같은 특성이다. 보편지위특성은 개인이 소속된 범주의 성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자질로서, 성과 연령, 인종, 문화적 배경 등과 같은 범주가 어떤 능력이나 자질과 결부되어 있다고 믿는 고정관념적 경향성에서 비롯된다. 두 특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보다 높은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보편지위특성에서 남성보다 불리하다. 성 고정관념이 여성의 일반적인 자질은 남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불리한 보편지위특성은 남녀의 노동분업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노동의 성분업은 남성을 사회, 여성을 가정에 배치함으로써, 남성의 일에 사회적 지위를 부여했고, 사회, 경제, 법, 종교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에게 높은 지위를 허용하고 구조적 파워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위 불균형은 오랜 역사동안 지속되어,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은 보편적으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능력이나 특수지위특성보다 보편지위특성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두가지 특성이 모두 고려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라는 보편지위특성 때문에 남성들과 똑같은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점차 성차별 금지조항이 수용되고 있지만, 성 고정관념에 의해 보편지위특성이 여전히 암묵적으로 고려되면서 여

성들의 능력은 의심받고, 지위를 얻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사회구조적인 지위차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원리와는 상충되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비중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능력에 따라 지위가 주어진다면, 보편지위특성보다는 특수지위특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수지위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지위특성에 의해 지위가 부적절하다고 평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Jussim과 동료들(1995)은 두 사람의 지원자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고정관념을 사용하여 보편지위특성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정당하고 안전하다고 지적한다. 즉 남녀가 동일한 능력을 가졌다면 남성을 뽑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때로는 보편지위특성이 더 강조되기도 한다. 가장 능력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는 상황에서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여성인 경우에는 그를 부적절하다고 보기 쉽고, 오히려 능력은 조금 모자라는 남성이 집단 지도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 개인의 특성이 주어진 상황과는 무관함에도 보편지위특성 때문에 지위를 얻거나 얻지 못하는 지위일반화 현상은 여성들이 지위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준다. 여성들이 남성과 비슷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남성들보다 더 뚜렷한 특수지위특성을 가져야만 여성이라는 보편지위특성을 상쇄할 수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도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에 오르지 못하므로, 자신의 능력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무시당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보는 반

면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유능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성의 사회적 지위는 구조적인 힘을 가지므로 남자는 유능하다고 가정하게 되고, 성공과 연결시키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고, 따라서 여성들은 착할지는 몰라도 무능한 사람으로 가정하는 성 고정관념은 유지된다.

지위의 힘은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지 영향을 미친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주도하고, 대화를 결정하며, 친밀성의 정도를 결정한다.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열등한 지위의 사람들에 대해 개인정보보다는 고정관념을 사용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갈등적인 정보를 무시하고 부합정보에 초점을 맞추므로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확인하게 된다. 반면 낮은 지위의 사람들은 파워를 가진 개인들에게 주의를 두므로, 가장 정보가 있는 개인정보에 집중하고, 따라서 비고정관념적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된다(Glick & Fiske, 1999). 즉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면서 고정관념을 사용하게 되고 자신은 고정관념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여성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므로,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여성들은 낮은 지위로 인하여 쉽게 고정관념의 대상이 된다. 사실상 권력의 상층부에서 사용하는 고정관념은 그 사회의 계급구조를 현 상태대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되므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순환적으로 반복 유지될 수 있다.

### 3) 파워

파워란 자신의 의지대로 타인으로 하여금 (저항을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왔다(Weber, 1946). 이후 파워란 강제할 수 있는 힘, 통제를 가하는 것 등의 power over 의미로 정의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power for 또는 power to를 포함하는 다양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조직, 경영 이론들은 직업에서의 파워는 공식적인 지위와 위계선 상에서 오는 것임을 밝힌다.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는 공식적인 지위를 반영한다. 남녀는 작업상 동등하지만 지위의 차이만 현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도전하는 연구들은 남녀가 성별과 성의 차이에 기인하여 지위뿐 아니라 파워의 양과 형태에서도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다. 더욱이 비공식적인 구조에서도 비대칭적인 파워가 존재하고, 이는 공식적 구조의 파워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즉 비공식적 파워란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도 않고서,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젠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공식적인 지위가 취약하고, 보살핌의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은 파워구조에서 불리하다. 파워에 대한 이미지 역시 여성적인 이미지와는 상이하다. 지도자나 파워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은 능력과 지배, 통제와 관련되고, 이는 남성적인 특성이라고 믿어져 왔다. 반면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돌봄, 복종, 소극성들은 파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리치(1995)는 여성들은 직접권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혼 등을 통해 간접권력을 추구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Johnson(1976)은 여성들은 직



접적이고 공식적인 파워에서 불리하므로, 간접적이고 개인적이며 무기력함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추구하며, 개인적 보상파워와 참조적 파워를 갖는다고 보았다. 최근 Glick과 Fiske(1999)는 남성들은 구조적인 파워를 가지면서 여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의존하면서 여성에게 이자적(dyadic) 파워를 허용했다고 지적한다.

남녀집단은 파워구조에서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지만, 남녀가 갈등적이지 않은 이유는 남녀관계가 이성애를 포함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이다(Fiske, 1998). 즉 남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제공하는 구조적인 파워를 가지면서, 인간관계에서는 여성들에게 의존하고,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동시에 간접적이고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Emerson의 파워-의존이론에 의하면, A의 B에 대한 파워는 B의 A에 대한 의존성과 일치한다. 이런 의존성은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용성과 정적으로 연관되고 A와 B관계 외의 자원 가용성과는 부적으로 연관된다. 즉 파워의 불균형은 비대칭적인 교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파워구조 자체가 성 고정관념을 유지시키고 정당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Glick과 Fiske(1999)는 남성의 구조적 파워와 여성의 이자적 파워가 두가지 성차별주의와 관련된다고 지적한다. 그 하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로서, 남성지배주의, 남성우월주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성차별주의는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고, 남성들이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여성은 낮은 지위에 위치지우는 형태로 나타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들의 구조적 파워를 정당화시키기 위

해, 남자는 여자보다 우수하고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파워를 가질만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저야하는 부담을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우호적 성차별주의로서, 역시 전통적 성 역할과 지위의 차이를 지지하고 정당화하지만 주관적으로는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된다. 즉 여성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 이성애적 친밀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녀의 배열은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특징짓고, 여성의 호감적 특성들을 강조하면서 여성도 여성적 영역에서 파워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우호적 성차별주의와 더불어 남성들이 보이는 이성애적 의존성은 여성들로 하여금 상대를 보살피고 개인적 관계에서 이자적 파워를 즐기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고, 고정관념을 유지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호적 성차별주의가 겉으로는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결국 이것도 여성의 종속을 합법화시키고, 적대적 성 차별적 신념과 함께 진행된다. 즉 여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여성이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지 않을 때 보여지는 것으로서, 여성이 자신에게 할당된 이자적 파워나 개인적 파워에 만족하지 못하고 구조적 파워에 도전할 때에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작동하게 된다.

## 5. 정보처리 과정: 지각자의 입장

### 1) 인지적 절약과 인지적 전략

사회심리학자들은 고정관념의 내용과는 독립적으로 인지과정에 일반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지과정은 왜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계속 사용하는지 그 기본적인 심리기제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

인지혁명과 더불어 80년대의 연구자들은 고정관념을 인지과정, 특히 범주화의 부산물로 간주하였다. 고정관념은 인지적으로 노력을 절약하는 장치로서 제한적인 정신적 용량을 보존하면서 사회적 환경의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보았다. 과거에 편견과 고정관념의 비정상성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정상성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인지적인 전략가로서 인지적 지름길을 채택하기 위해 범주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Taylor, 1981).

범주화의 잇점은 어떤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낼 필요가 없이 그가 속한 집단과 관련된 도식을 활성화시켜, 집단의 대표적인 속성을 기초로 정보를 처리해 나가도록 만든다. 즉 개인의 개별 속성들을 일일이 고려할 필요없이 기억표상 내에 있는 범주의 도식내용과의 부합여부를 체크하고 추론하는 단순화된 정보처리가 가능하다. 범주화가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은 대상에게 그가 속한 범주에 대한 내현성격이론을 적용시켜 개인적 속성을 추론하고(Ashmore, 1987), 따라서 오지각이 일어날 경향성이 있다. 또한 성 고정관념은 상관착각(illusory correlation)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한 범주의 구성원들은 특정 행동과 특성들이 공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기 정보처리 현상은 이후의 정보처리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othbart(1981)는 인지적 경제성 때문에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편향을 일으키고, 기대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는 기대 일치성을 강조한다.

1990년대에 이르러 인지적 지름길 접근을 보완하는 더 넓은 관점이 등장하였다. 인지적

절약자의 습관적인 지름길 선택은 여러 인지적 선택지 중 하나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는 인지적 지름길을 사용하나, 목적에 따라서는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는 “동기화된 전략가” 메타포이다(Fiske et al., 1993). 전략이란 목표에 따라 부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함을 의미한다. 바쁜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고정관념의 적용은 방략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그러나 목표에 따라서는 목표-기반적으로 개인 정보를 선택하는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tanger와 동료들(1992)은 기대-일치 처리 대 정확지향적 처리를 파악하였고, Brewer(1988) 역시 인상형성시에 범주 기반적 방략을 쓸 수도 있지만 개인화 방략을 쓸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분명히 다른 인지적 표상을 가정한다. 즉 범주기반 표상은 ‘머릿속의 그림’, 즉 고정관념을 의미하는데 비해 개인화된 표상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한 연결망 표상이다. 목표는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목적에 따라 인지적인 전략을 달리 쓴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남녀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때의 경향성은 남성은 개인화하는데 비해 여성에게는 고정관념을 적용하는 경향성이 크다. 그 중 한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차이 때문이며, 또다른 이유는 문화적 기준이 남성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이건 영어이건 기준값(default)은 남성이다. 의사, 변호사, 화가, 시인 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성을 떠올린다. 그리고 기준 범주에서 이탈된 집단에 대해서는 표지(mark)를 붙이게 된다. 즉 우리는 남자 변호사라고 하지 않고, 여자 변호사, 또는 흑인 변호사, 여의사, 노인 의사, 여류화가, 여류시인 등이

다. 물론 역할에 따라서는 여성이 기준값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간호사와 미용사, 미인의 경우이다. 이는 어떤 범주가 특정 역할을 독점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여성은 남자보다 성별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흑인은 백인보다 인종을 갖는 존재로 다루어진다고 지적된다(Fiske, 1998). 표지를 가진 지위는 그 사람들을 기준집단과는 다른 방식에 따라 범주화하도록 만든다. 즉 흑인 남자는 남자라는 범주보다 흑인으로 범주화되고, 백인여성은 백인이 아니라 여성으로 범주화된다. 다른 단서가 없는 한 여성은 여성으로 빨리 범주화된다. 더욱이 연구들은 다른 모든 범주들보다 성 범주가 우선되는 범주임을 밝히고 있다.

## 2) 자동적 활성화

동기화된 전략가로서 의식적으로 목표중심적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새에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여성운동이나 인권운동의 영향으로 차별이나 고정관념을 의식적으로 없애려는 노력들이 행해지고, 따라서 전통적인 성차별주의 척도나 태도척도들에서는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주의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차별이나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인지심리학의 관심이 암묵적 기억에 쏟아지면서, 고정관념과 편견의 연구 방향을 변화시켰다. 전통적인 연구들이 의식적이고 명백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조했다면, 최근의 고정관념 연구들은 고정관념의 자동적 활성화와 암묵적 태도에 모아져 있다. 연구들은 고정관념이 지각자의 자각 없이도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

다(Macrae et al., 1994; Banaji et al., 1996).

성별에 대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연합은 과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인 자각 밖에서부터 작용한다. 고정관념은 아동의 인지능력이 발달되기도 전에 그리고 고정관념의 타당성과 수용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의문을 표시하기도 전에 아동의 기억에 형성된다. 그리고 고정관념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나 여성주의 관점과 같은 개인신념은 고정관념보다 늦게 발달된다. 이런 발달과정의 결과로 고정관념은 개인 신념보다 반복 활성화되고 습관적으로 사용되어 쉽게 접근가능하다.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인 문화 속에서 사회화 경험을 하기 때문에 편견이 높은 낮은 문화 속에 내재해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고, 고정관념은 빈번하게 활성화되고 연합이 잘 이루어져 있으므로, 누구나 대상을 만나면 고정관념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즉 비의도적이고 자동적인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편견이 있든 없든 모두에게 필수적이며, 이러한 자동적 활성화나 자동적 연합이 편향 지속의 주 원인임이 지적되고 있다. 자동적 활성화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의식수준 이하로 제시되는 점화자극에 이후 정보처리가 영향받는 현상은 전의식적 자동성이라고 하고, 점화자극이 의식수준 이상으로 제시되었지만 고정관념적 효과를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 영향받는 현상은 후의식적 자동성이라고 한다(Fiske, 1998).

자동적인 고정관념의 연합은 반응속도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집단의 명칭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연합을 점화시켜 무관하거나 반대적인 연합보다 더 빨리 반응하도록 한다. Banaji (1993)는 중립적인 자극을 점화자극으로 제공한

뒤에는 남녀의 의존성, 공격성 평정에 차이가 없지만, 성 고정관념을 점화자극으로 제공한 뒤에는 남자는 공격적, 여자는 의존적이라고 평정함을 발견하였다. Banaji와 동료들(1996)의 연구는 고정관념 부합 연상의 전의식적 자동성을 보여준다. 그는 전의식 수준에서 성관련 명사나(어머니/아버지), 성 분업적 직업(비서/기혼자), 일반적인 남성명사(human/layman)로 점화된 경우, 대명사가 남성/여성인지, 또는 대명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이전 점화자극과 맞는 자극에 대한 반응속도가 빨랐다. 그리고 피험자의 성이나 성차별주의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인 고정관념적 연상이 잊점이 있음을 지지하였다. 비슷하게 피험자들은 고정형적인 성격특성이나 다른 특성들을 전의식적으로 점화시켰을 때, 점화된 자극의 성과 부합되는 이름을 더 빨리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범주는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적 연상을 촉진시킴을 보여준다. 또한 Banaji등(1996)은 자료의 회상이 성 고정관념에 의해 편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정관념의 존재는 결과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을 인식하는 것을 막는다. 고정관념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볼지를 결정해 줄 뿐 아니라 무엇을 보지 않아야 할지를 결정해 준다.

후의식 자동성도 나타난다. 의식수준에서 중립적인 점화("길을 건너다")나 성 고정관념적 점화("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위험했다")후에, 뒤죽박죽된 문장을 제시하고 피험자들에게 맥락 내의 문장을 올바르게 놓도록 한 다음, 그 다음 연구에서 비교적 일련의 비정보적 활동에 참여하는 남녀 자극인물을 평정하도록 한 결과, 중립 점화조건에서는 남녀간의 특성 평정에 차이가 없었으나, 고정관념 점화가 선행되었을 때에

는 고정관념적으로 빨리 반응을 하였다(Banaji et al., 1993). 즉 점화자극은 고정관념을 활성화하고, 모호한 행동의 해석을 바꾸었다. 점화자극에 대한 명시적 기억은 고정관념적 판단과는 무관했는데도 후속자극을 고정관념적으로 해석하도록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후의식적 자동화의 또 다른 예들은 분류과제에서 나타난다. 사람들에게 성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가진 남녀와 비일치 직업을 가진 남녀의 사진을 제공하고 직업에 따라 분류하게 했을 때, 고정관념 일치가 비일치보다 더 빨리 분류되었다(Zarate et al., 1995). 사람들은 또한 성별이 상황적으로 현저할 때 성별을 근거로 더 빨리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다(Carpenter, 1994). 또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자동적인 분류 경향성은 성별에 따르는 내집단 선호에서도 나타난다. 사람들은 성에 따라 사진을 분류케 했을 때 동성 사진을 이성 사진보다 빨리 분류하는 경향이 있고, 직업 분류에서도 동성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남자들은 he를 she보다 빨리 분류하고 여자들은 그 반대인 경향이 있었다(Banaji et al., 1996).

이러한 자동적 점화효과를 실생활과 연결시켜 연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Rudman과 Borgida(1996)는 일련의 실제 TV 광고를 점화자극으로 제시한 뒤에, 단어판단과 여성을 면담하도록 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남자 피험자들은 여성을 성 대상화하는 광고로 점화된 경우, 중립자극으로 점화된 경우에 비해 성차별적 단어(예: bimbo)에 더 빨리 반응하며, 연구조교로 신청한 여성들을 면담하면서 성희롱 행동을 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미디어의 광고가 시청자들의 고정관념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실제 행동에 영

향을 미침을 입증한 것이다.

이런 효과는 개인의 성차별주의 태도와는 독립적이라고 지적되었다. Lepore와 Brown(1997)은 고정관념 내용을 점화시킨 경우, 명칭과 고정관념 내용에 대한 반응에서 편견 고저 피험자간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 즉 편견과는 관계없이 특정 고정관념 내용이 그와 관련된 고정관념-부합 내용들을 전의식적으로 점화시켰다. 고정관념의 노출과 고정관념적 판단의 연습은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빠르고,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 3) 암묵적 태도

Deaux와 LaFrance(1998)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이나 남녀의 차별대우, 여성의 능력부족 등에 대한 고정관념은 많이 없애려고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감추어졌지만, 보다 교묘하고 암묵적인 형태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Swim(1994)은 새로운 형태의 성차별주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modern sexism은 여성이 열등하다는 고정관념은 거부하지만, 차별이 문제가 아니라고 믿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정부와 미디어가 여성에게 지나친 주의를 기울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Tougas(1995)는 새로운 성차별주의는 평등의 가치와 여성에 대한 잔여 부정적 감정 사이에서의 갈등을 표현한다고 본다.

암묵적인 성 편견적인 태도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활성화되어 드러난다. 성 고정관념의 자동적인 활성화와 더불어 의식적인 자각 밖에서 나타나는 태도활성화가 암묵적 태도이다. 일찍이 Fazio(1986)는 기존의 연구에서 신념-태도-

행동의 불일치가 발견된 것은 태도의 암묵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강한 연합강도를 가진 태도는 대상을 만났을 때 정서적 반응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이는 후의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암묵적 연합검사(IAT, Implicit Association Test)의 발달로, 본인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이 드러내는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해 내고 있다. 성별과 관련하여 Rudman과 동료들(2001)은 IAT를 사용하여, 여성들은 '따뜻함'에 강한 연합을 보이는 반면, 남성들은 '권력'에 강한 연합을 보이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또한 과학과 수학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태도가 의식적인 측정결과에서는 크지 않지만 IAT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암묵적인 고정관념화는 충분히 자동적이 아닐지라도 자신을 편향적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의 차별과 편견을 설명한다. 이 검사결과들은 암묵적 태도는 명시적 측정치와 상관관계가 낮으며, 암묵적인 태도가 실제 행동을 더 잘 예언해 준다고 지적되고 있다(권준모, 2001).

## 6. 자기인식과 자기 이행적 예언효과: 대상의 입장 (Insider's Perspective)

인간은 젠더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 이 사회에 순응하며 살아야 할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자라난다. 특히 아동은 성별이 강력하고 우선적인 범주이므로, 자신의 성별을 구별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을 성별과 관련하여 바라보고 자기 정의의 기초가 된다. 또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성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역할을 배우면

서 성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자기를 규정한다. 성 고정관념의 내용은 여성의 양육적 특성을 강조하고 인간관계 중심적이 될 것을 처방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을 관계지향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한다. Cross와 Madson(1997)은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으로 해석하며, 남성들은 독립적(independent)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인식이나 해석은 가치관을 세우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립적으로 과제를 지향하는 사람은 그것을 향한 활동을 할 것이고, 인간관계나 가족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돌봄을 향한 활동에 자신을 헌신할 것이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여성역할의 정의를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직업보다는 양육과 배우자 지원을 더 중요한 것으로 평정한다. Eccles와 동료들(1999)의 종단연구 결과에서 보여지는 바는 남녀 학생들은 각기 다른 가치관 위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가족을 위해 직업을 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직업을 갖는 이유도 타인을 돕고 사회에서 가치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남학생들은 유명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며,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것을 가치있게 보았으며, 그러기 위해 수학과 컴퓨터 사용 직업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여성들은 가족의 필요에 따라 남성보다 더 자신의 직업을 쉽게 희생하였다.

성고정관념의 자기충족적 예언효과는 장기적인 목표 뿐 아니라 단기적인 행동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Snyder(1981)는 행위일치과정

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각자의 범주적 기대가 대상인물이 고정형에 일치된 행동을 일으키도록 유도한다고 본다. Snyder등은 남성들에게 전화로 대화하는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이나 매력없는 여성이라고 알려 주었을 때, 대상여성이 아름답다고 믿을 때에는 따뜻하고 수용적이고 사회적일 것이라고 기대했고, 이런 기대는 그에 걸맞는 대화를 시도하게 했으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여성들은 실제로 따뜻하고 수용적으로 행동했다. 뉴스웍(2000.11.6)에서는 심리학연구들을 인용하여 고정관념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은 수학을 잘 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는 여성들에게 “수학은 어렵다”라는 문장을 준 뒤 수학문제를 풀게 했을 때 성적이 낮아졌으며, 동양인은 수학을 잘 한다고 믿는 동양여성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인임을 환기시킨 후에 수학 시험을 보았을 때 점수가 올라갔다.

그런데 성 고정관념의 내용중 신체특성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Deaux & Lewis, 1984). 특히 여성의 신체는 남성의 신체보다 주목을 받고, 고정관념이 더 많이 적용된다. 재거는 남성들은 생식역할에서 자유로우므로 육체적 외형을 자기 정의와 크게 관련시키지 않는데, 여성들은 출산이나 가정적 역할 때문에 육체를 가꾸고 자기정의의 중심이 되었다고 본다(통, 2000). Swim과 동료들(2001)은 매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고정관념의 유형 중 남녀 차이가 가장 분명한 부분이 성 대상화라고 지적한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고정관념 역시 처방적이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몸을 관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상화하고 내면화하며,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몸을 통제한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을 해치고 우울증을 야기시킨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대상화시키고 신체에 관심을 쏟는 상황(거울 앞에서 수영복 착용)에서, 수학점수가 떨어진다는 실험연구도 있다. 또한 성 고정관념적이고 성 대상화 내용을 담고 있는 TV 광고를 본 여성들은 수학점수가 나빠졌지만, 중립적인 광고를 본 여성들은 변화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고정관념적인 광고에의 노출은 수학과 과학에서 여성들의 수행능력을 떨어뜨린다. 현대의 성 차별주의는 외현적일 뿐 아니라 내현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매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차별주의와 매체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성 대상화는 여성들의 능력을 저하시키며, 고정관념을 확인해 줄 수 있다.

## 7. 맺음말

성 고정관념을 끈질기게 만드는 몇가지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상황은 남성에게 과제역할을 제공하고 지위와 파워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남성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여성은 정서적 역할을 맡으면서 좋아하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이성애 목표, 파워목표, 성 정체성 목표 때문에 사용되어 왔고(Fiske, 1998), 이 사회를 안정된 성별 구조로 유지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성별범주는 가장 먼저 학습된 범주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수준에서는 성 고정관념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도 못하면서 자동적으로, 암묵적으로 활성화되어 왔다. 그리고 각 개인은 그와 일치하는 정체성을 구성하며 자기이행적으로 고정관념을 확인시켜

주는 삶을 살고 있다.

성 고정관념이 여성에게 중요한 issue가 되는 이유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기저에 고정관념이 내재해 있고, 여성에 대해서 더 처방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하려는 여성주의자들의 노력은 많은 기여를 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호한 여성편견은 어떤 형태로든 무의식적 갈등 수준에 숨어있다. 의식적으로 고정관념을 수정하는 통제적 인지과정이 활성화된 고정관념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고정관념의 지식에 반대하는 신념들은 문화적 지식보다 늦게 발달되었으므로 덜 자동적이다. 게다가 사회적인 상황은 끊임없이 고정관념을 확인해주는 자극들을 제시해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본다면,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식 수준에서의 변화만으로는 의식되지도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고정관념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는 사회 공간의 구조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반복 노출되는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고정관념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정관념과 불일치되는 몇몇 경우들은 고정관념을 수정해 주기 보다는 하나의 하위범주가 되거나 예외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보다 큰 틀의 사회적 상황변화가 이루어져, 성분업적 역할배분을 극복하고, 남녀에게 지위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이에 맞추어서 여성들이 자신을 개발하여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리치(1995). 김인성 역.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서울: 평민사.
- 벨리언(2001). 여성의 성공 왜 더딜까? 서울: 여성신문사.
- 통(2000). 이소영 역. 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 한신문화사.
- Ashmore, R., DelBoca, F., & Wohlers, A. (1987). Gender stereotypes. In R. Ashmore & F. DelBoca(Eds.), *The Social Psychology of Female-Male Relations*, 69-120. London, Academic Press.
- Banaji, M., & Greenwald, A. (1995). Implicit gender stereotypes in judgments of f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81-198.
- Banaji, M., & Hardin, C. (1996). Automatic stereotyping. *Psychological Science* 7, 136-141.
- Baron, R. (1995). An ecological view of stereotype accuracy. In Y. Lee, L. Jussim, & C. McCauley(Eds.), *Stereotype accuracy*, 115-140. Washington, DC: APA.
- Biemet, M., & Kobrynowicz, D. (1999). A shifting perspective on the complexity of gender stereotypes and gender stereotyping. In W. Swann, J. Langlois, & L. Gilbert (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75-106), Washington DC, APA.
- Carpenter, S. (1994). Gender categorization: Cognitive effects of personality and situation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9, 119-128.
- Cross, S.,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 Deaux, K., & Lewis, L. (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 of P & SP*, 46, 991-1004.
- Deaux, K., & LaFrance, M. (1998). Gender. In D. Gilbert, S.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788-827). NY: McGrawHill
- Eccles, J., Barber, B., & Jozefowicz, D. (1999). Linking gender to educational, occupational, and recreational choices: Applying the Eccles et al. Model of achievement-related choices, In W. Swann, J. Langlois, & L. Gilbert (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153-192), Washington DC, APA.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agly, A.(1995). The science and politics of comparing women and men. *American Psychologist*, 50, 145-158.
- Eagly, A., & Mladinic, A. (1993). Are people prejudiced against women?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Vol. 5, 1-35). John Wkley.
- Fazio, R. (1986). How do attitude guide behavior? In R. Sorrentino & E. Higgins (Eds.), *The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204-243, NY: Guilford.
- Fiske, S. (1993). Controlling other people: The impact of power on stereotyping. *American Psychologist*, 48, 621-628.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357-411). NY: McGrawHill.



- Forsyth, D. R. (2001). 서울대 사회심리학 연구실 (역), 집단역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Glick, P., & Fiske, S. (1999). Gender, power, dynamics, and social interaction. In M. Ferree, J. Lorber, & B. Hess (Eds.), *Revising Gender*(365-398), NY, Sage.
- Glick, P., & Fiske, S. (1999). Sexism and other "isms": Independence, status, and the ambivalent content of stereotypes. In W. Swann, J. Langlois, & L. Gilbert(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193-222), Washington DC, APA.
- Greenwald, A., & Banaji, M.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Johnson, P. (1976). Women and power: Toward a theory of effective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32(3), 99-110.
- Jussim, L. (1991). Social perception and social reality: A reflection-construction model. *Psychological Review*, 98, 54-73.
- Jussim, L., Nelson, T., Manis, M., & Soffin, S. (1995). Prejudice, stereotypes, and labelling effects: Sources of bias in person perception. *J of P & SP*, 68, 228-246.
- Kimmel, M. (2000). *The Gendered Socie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epore, L., & Brown, R. (1997). Category and stereotype activation: Is prejudice inevitable? *J of P & SP*, 72, 275-287.
- Lipmann, W. (1922). *Public opinion*. NY: Harcourt Brace.
- Macrae, C., Milne, A., & Bodenhausen, G. (1994). Stereotypes as energy-saving devices: A peek inside the cognitive toolbox. *J. of P & SP* 66, 37-47.
- Rothhart, M. (1981). Memory processes and social beliefs. In D.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145-181. Hillsdale, NJ: Erlbaum.
- Rudman, L., & Borgida, E. (1996). The afterglow of construct accessibility: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priming men to view women as sexual objec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493-517.
- Rudman, L. Greenwald, A., & McGhee, D.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9), 1164-1178.
- Snyder, M. (1981). On the self-perpetuating nature of social stereotypes. In D.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183-212. Hillsdale, NJ: Erlbaum.
- Spence, J. & Buckner, C. (1998). Instrumental and expressive traits, trait stereotypes, and sexist attitudes: What do they signif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 Strangor, C., Lynch, L. Duan, C., & Glass, B. (1992). Categorization of individuals on the basis of multiple social features. *J of P & SP* 62, 207-218.
- Swim, J. (1994). Perceived versus meta-analytic effect sizes: An assessment of the accuracy of gender stereotypes. *J of P & SP*, 66, 21-36.
- Swim, J., Hyers, L., Cohen, L., & Ferguson, M. (2001). Everyday sexism: Evidence for its incidence, nature, and psychological impact from three daily diary stud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31-53.

- Taylor, H. (1981). A categorization approach to stereotyping. In D.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88-114, LEA.
- Tougas, F., Brown, R., Beaton, A., & Joly, S. (1995). Neo-sexism: Plus ca change, plus c'est parei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842-849.
- Weber, M. (1946). Class, status, and party. In C. Heller(Ed.), *Structured social inequality*, 14-24. NY: Macmillan.
- Zarate, M., & Sandoval, P. (1995). The effects of contextual cues on making occupational and gender categoriz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 353-362.

## Gender Stereotype: Why not disappear?

Hyeja Ch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review study was to explore why the gender stereotype is persistent and how it affects women negatively more than men. The review covers studies of dimensions of gender stereotype, of social structure not symmetrical between men and women, of stereotype activation which takes place pre-consciously or consciously, and of stereotype which works as self-construal and self-fulfilling prophecy.